

## 누워 침 뱉기

나 운 영

「나는 한국에서 제일가는 음악가입니다. 나 이외에는 선배도 아무도 없습니다. 이런 가운데서도 한국 악단을 이만큼 이끌어온 사람이 바로 나올시다.」

이것은 몇 해 전 우리나라 음악가가 외국에 가서 말한 멋진(?) 이야기의 한 토막이다.

「우리나라 작곡계는 황무지와도 같습니다. 연주 분야에 비해 작곡 분야는 적막한 느낌을 줄 뿐입니다.」

이것은 두어 달 전 국내 잡지에 실린 어느 음악가의 발언 내용이다. 나는 이 두 글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. 전자는 외국에 가서 자기 자랑을 최대한도로 늘어놓았으나 결국은 여지없이 우리 악단을 국제적으로 망신시킨 놀라운 망언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것을 그는 아는지 모르는지 ...

자고로 제 자랑하는 사람 쳐 놓고 좀 모자라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외국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해 줄지는 미처 생각도 못 해 보고 그저 「내가 최고야」라고 떠들어댔으니 나라 망신도 유분수지 이럴 수가 있겠느냐 말이다. 나는 외국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.

「나는 한국을 대표해서 온 사람도 아니요. 나는 한국의 제1인자도 아닙니다. 내 선배나 동료, 후배 가운데 유능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. 나는 당신네들이 나를 보고 한국 악단의 수준을 저울질할까 봐 두렵기만 합니다.」

이렇게 말한다면 남을 추켜세우는 통에 나까지도 덩달아 올라가는 법이고 한편 멋진 민간 외교가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? 후자는 우리 작곡 분야가 활발치 못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자기 자신을 포함시켜서 한 말인지 혹은 자기만을 빼놓고 한 말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말은 작곡가를 도매금으로 깎아내린 매력 없는 말이라 아니할 수 없다.

물론 연주 분야에 비하여 작곡 분야가 뒤떨어졌다는 것을 나도 일단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. 그러나 연주와 작곡은 그리 간단히 비교해서 말해 버릴 수만은 없는 일이다.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연주는 주로 대학 시절에 배웠던 외국곡만을 연주하고 있고, 우리의 새 작품은 거의 연주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우리 작곡가 편에서 볼 때 연주자들은 우리 작품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 그 기술과 성의가 부족해서 우리 작곡가들은 마치 고속도 촬영의 사진 모양으로 그들의 고속도 연주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니 단순히 연주 수준이 높고 작곡은 수준이 형편없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경솔한 말이라 아니할 수 없지 않은가? 더구나 우리 작곡가들은 피땀 흘려 작곡해 놓고도 연주료를 물고 초대권을 뿌려 발표회를 하고 빗더미 위에 올라앉아야만 하니 이런 모순된 일이 어디 있는가?

자업자득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작곡가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작곡 분야를 스스로 깎아 내린다는 것은 동업 작곡가들에게 일격을 가한 데서 오는 일종의 통쾌감을 맛보기 위한 가장 졸렬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멸종작업을 자행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해 주지 않을 수 없다. 전자는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고 후자는 자기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물론 우리 음악인, 우리 악단, 우리나라를 욕되게 한 것이니 한심스럽기만 하다.

「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.」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는 누구나 꼴뚜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은 물론 「누워 침 뱉기」와 같은 일이란 죽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?